

## 결혼이주자의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특성과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정유리\*

**요약** 본 연구는 정부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시민사회 주도 외국인 이주자 지원 단체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결혼이주자의 참여 특성을 조사하고,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형과 비참여형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함으로써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참여가 참여자들의 생활만족도 향상 및 지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대구광역시 동구 및 경상북도 청도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자로, 지역거주민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시민단체 기관을 통해 136명의 설문지가 표집되었다. 분석 결과 결혼이주자의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변화는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높은 생활만족도는 지역사회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형 결혼이주자의 경우 비참여형 결혼이주자 보다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였으며, 참여형 결혼이주자 중에서도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가 높을수록 현재 생활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높은 생활만족도는 지역사회 적응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기반을 두고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 및 지역사회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의 필요성에 관해 제언하였으며, 이를 위한 정책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결혼이주자, 정착지원 프로그램, 지역사회 적응, 생활만족도, 문화 적응

### 1. 서론

국제이주는 본국에서 국경을 넘어 이주국에 거주하기 위해 이동하는 행위로 스티븐 카슬과 마크 J. 밀러(Stephen Castles & Mark J. Miller, 2013)는 모국에

\* 대구대 일반대학원 사회교육학과 박사과정, 지리학, jeongyuri@daegu.ac.kr

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반응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더 나은 기회와 생활양식을 찾으려는 동기 때문에 이주가 발생하며, 앞으로도 세계는 이주의 시대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주의 시대 속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은 우리나라에서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이주자의 수는 1,445,631명에 달했다. 그 중에서도 결혼이민자 148,235명, 혼인귀화자 83,929명으로 전체 결혼이주자의 수는 231,520명에 달한다. 비록 결혼이주자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보다 그 수는 적지만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다른 유형의 외국인 이주자와는 달리 '국민의 배우자'이자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내 및 지역사회에 정착해야만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결혼이주자의 지역사회 적응 및 정착은 다른 유형의 이주자의 적응 및 정착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결혼이주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및 정책 마련이 미비한 상태에서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결혼이주자의 급증은 다양한 사회적 혼란과 부정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시민단체에서는 결혼이주자의 원만한 정착 및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구축 및 시행해왔다.

그러나 정부주도 다문화가족지원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주도 외국인 이주자 지원단체를 통한 문화, 경제, 교육, 언어, 취업, 보건의료 등 결혼이주자의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혼이주자의 대부분은 한국사회의 주류적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제반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순양, 2013: 22).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자의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 특성 및 실태를 파악하고,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참여가 참여형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 향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와 생활만족도의 변화가 지역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참여가 결혼이주자의 문화적응 및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는지를 알려주며,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및 정

착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결혼이주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2. 이론적 검토

### 1) 결혼이주자의 정착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현황

결혼이주자의 급속한 증가와 지역사회 부적응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시행하고, 그들의 언어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여 결혼이주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고자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 운영되어온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결혼이주자를 위한 다양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국가는 다문화사회로부터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 문제의 해소와 지역사회로의 사회통합을 정책목표로 하여,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결혼이주자들을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왔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16). 따라서 국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합법적 신분을 가진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기도 하지만, 표 1과 같은 다양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외국인 이주자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14년 현재 전국의 218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교육사업, 상담사업, 문화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사업으로는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상담사업으로는 가족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사례관리, 심리검사, 문화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과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정부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인권단체, 종교단체, 지역사회복지기관, 학교 등 시민사회주도

표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착지원 프로그램 내용

구분		내용
사업	기본사업	한국어교육,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취업연계 및 교육 개인·가족상담, 방문교육
	특성화사업	이중언어교실, 언어발달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등
홍보 등 운영		나눔봉사단, 자조모임, 다문화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홍보,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등

자료: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외국인 이주자 지원단체를 통해서도 시행되고 있다. 실제 지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교육, 한국 문화 교육, 가족 교육, 상담, 자조 모임과 같은 기본적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및 활동과 더불어 결혼이주자 개인의 인권보호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2)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 개념

신과 존슨(Shin & Johnson, 1978)에 의하면 생활만족도란 선택된 기준에 따른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로 정의된다. 생활만족도의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뉴가튼(Neugarten, 1968: 고영준, 2008에서 재인용)의 정의에 따르면, 생활만족도란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면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의미와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효율적으로 주위환경에 잘 대응해나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생활만족도는 삶의 질, 생활의 적응도, 생활의 행복감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학자들에 따라 그 정의를 달리하지만 일반적으로 생활 전반에 대한 욕구나 기대의 충족에 따른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로 생각할 수 있다.

생활만족도에 있어 결혼이주자의 만족도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부부생활과 같은 가족적 차원에서의 생활, 지역적 차원에서의 생활, 국

가적 차원에서의 생활과 같은 전반적인 생활만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생활만족도는 결혼이주자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나타내는 주관적인 감정상태이자 태도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지역사회 적응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삶의 질에 대한 생활만족도는 개인의 경험이나 기대 등에 강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며, 질문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영향을 받기 쉽다(김두섭, 2013: 132). 생활만족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삶의 만족도는 한 개인이 타인과 자신의 삶을 비교를 통해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판단하는지의 인지적인 측면과, 삶에 대해 각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 기쁘고 즐거운지, 아니면 슬프고 부정적인지와 같이 정서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김신영·백혜정, 2008; 최형임·문영경, 2013에서 재인용).

### 3) 결혼이주자의 지역사회 적응 개념

문화접촉은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집단이나 사회가 문화적인 면에서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의미하며, 문화적응이란 이러한 문화접촉의 상황에서 적응과 부적응의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등장하게 되었다(이순자, 2013). 이처럼 결혼이주자 중에서는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최정순, 2009). 따라서 결혼이주자의 부적응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다문화가족 전체 혹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적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로도 논쟁이 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다.

이주자와 관련하여 적응은 통합, 흡수, 동화와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하며, adaptation, adjustment, acculturation, assimilation, cross-cultural adaption과 같은 개념들을 통합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적응이란 자연환경의 변화나 인구·경제·조직 등과 같은 사회의 내부 변화에 반응하는 인간 행동을

총칭하며, 개인은 이주를 통해 기존에 생활하던 특정 환경에서 벗어나 상이한 문화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그 지역 문화에 적응해 나가게 된다(정유리, 2014).

존 베리(Berry, 1980)에 의한 문화적응(cultural adaptation)은 이주사회에서 심리적·문화적 변화로 나타나는 궁극적인 결과를 의미하며, 문화변용(cultural acculturation)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새로운 문화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것을 문화적응이라 정의하였다.

#### 4) 선행연구의 고찰

결혼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대다수가 결혼만족도와 관련한 연구이며, 원만한 부부관계나 사회관계는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미숙, 2013; 김오남 외 2명, 2008; 박미향, 2014; 이순자, 2013). 또한 다문화관련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이용 실태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대부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개선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김우찬, 2010; 오세영, 2010; 이오복, 2011; 최은정, 2008).

결혼이주자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장은애·최영(2010)은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정체성 유형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문화정체성의 유형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였으며, 한국어 능력, 거주 지역, 결혼기간, 월평균 가구 소득 등의 변인이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신의현(2009)은 경기도 부천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적응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배경 요인과 교육프로그램 참여 특성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교육 참여특성에 따른 사회적 활동 및 사회소속감 그리고 사회적응 정도의 차이는 교육기관, 참여 프로그램, 참여 동기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교육기간에 따른 사회적응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완기(2012)의 결혼이민자여성의 초기 정착 방안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여성의 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통

합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클수록 조기 정착 가능성을 통한 사회통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우지혜(2014)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는 생활만족도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이외의 여가 참여에 관한 이혜린·권유홍(2014)의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에서도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은 다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긍정적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자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와 지역사회 적응과 관련한 연구로는 심인선(2007)의 결혼이주여성의 성인교육 경험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에게 성인으로서의 교육경험은 한국문화의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박진아(2014)의 연구에서 또한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만족도는 한국정착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익준(2014)의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교육프로그램 만족도는 한국어능력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의 향상, 즉 생활만족도의 향상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밝히며, 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현재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여유가 부족하여 사회통합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연구 설계

#### 1) 연구 가설

결혼이주자와 관련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생활만족도와 지역사회 적응과 관련한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기존의 결혼이주자에 대한 연구는 주

로 현황 및 실태조사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연구에서 또한 단순히 프로그램 만족도를 측정하거나, 한국생활 적응과 관련한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결혼이주자의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와 변화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자의 정착지원과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만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하여,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결혼이주자의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는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결혼이주자의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 특성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는 지역사회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조사 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한, 국적을 가지지 않은 결혼이민자와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 모두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자는 각 조사대상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시민단체 담당자의 협조를 얻어 본 센터에서 교육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비참여자의 경우 편의추출방법(Convenience Method)을 이용하여 2013년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대구광역시 동구와 경상북도 청도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자를 대상으로 상위 4개국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일본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하였다. 이 조사로 회수된 설문지는 154부였으며, 무응답이나 중복 응답 등 분석에 문제가 있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136부이다.

### 3) 측정 및 분석 방법

결혼이주자의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 특성과 지역사회 적응의 결과 분석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수행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 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결혼이주자의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s t-test),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생활만족도는 개인만족감, 가족만족감, 지역만족감, 국가만족감의 4차원으로 구분하여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측정되었다. 측정항목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였다(표 2).

셋째,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가 지역사회 적응에 있어서 유의한 영향력

표 2. 생활만족도 측정항목

구분	측정항목	신뢰도
개인만족감	1. 전반적인 개인생활의 만족감 2. 자신감 향상 3. 개인의 능력 향상	.816
가족만족감	4. 전반적인 가족생활의 만족감 5. 가족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변화 6. 자녀양육에 대한 능력 향상	.808
지역만족감	7. 전반적인 지역생활의 만족감 8.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증대 9.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변화	.837
국가만족감	10. 전반적인 국가생활의 만족감 11. 국가에 대한 관심 증대 12.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변화	.776

표 3. 지역사회 적응 측정항목

구분	측정항목	신뢰도
지역사회 적응	1. 지역사회 소속감과 주민의식	.644
	2. 지역의 편안하고 익숙한 정도, 애착심	.600
	3.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662

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s chi-square test 검증기법을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결혼이주자들의 생활만족도 차이가 지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 적응 문항 또한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측정되었으며, 측정항목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였다(표 3).

## 4. 연구결과 분석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결혼이주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본 설문에서는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80명(58.8%)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 56명(41.2%)이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나이는 30대 미만이 82명(60.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30세 이상~40세 미만이 49명(36%), 40세 이상~50세 미만이 3명(2.2%), 50세 이상이 2명(1.5%)의 비율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연령대는 결혼이주자의 나이에 비해 연령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40대 이상~50대 미만이 69명(50.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자가 81명(59.6%), 경상북도 청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자가 55명(40.4%)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이주자들의 출신

국가를 기준으로 볼 때, 베트남 출신이 86명(63.2%)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중국 17명(12.5%), 캄보디아 12명(8.8%), 일본 9명(6.6%), 필리핀 7명(5.1%)으로 나타났다. 기타지역 출신으로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명(3.7%)의 결혼이주자가 응답하였다. 거주기간에 대한 응답에서는 45명(33.1%)의 응답자가 7년 이상 한국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 이상~7년 미만이 29명(21.3%), 1년 이상~3년 미만이 28명(20.6%), 3년 이상~5년 미만이 25명(18.4%), 1년 미만이 9명(6.6%)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항목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성별	여	136	136	거주	1년 미만	9	6.6
나이	30세 미만	82	60.3		1년 이상~3년 미만	28	20.6
	30세 이상~40세 미만	49	36.0		3년 이상~5년 미만	25	18.4
	40세 이상~50세 미만	3	2.2		5년 이상~7년 미만	29	21.3
	50세 이상	2	1.5		7년 이상	45	33.1
	현재 거주지역	대구광역시 동구	81		59.6	종교	기독교
	경상북도 청도군	55	40.4	불교	59		43.4
배우자의 나이	30세 미만	7	5.1	이슬람교	2		1.5
	30세 이상~40세 미만	35	25.7	천주교	8		5.9
	40세 이상~50세 미만	69	50.7	통일교	4		2.9
	50세 이상	23	16.9	기타(무교)	4 (35)		2.9 (25.7)
	결측	2	1.5	결측	8		5.9
출신국	베트남	86	63.2	자녀 유무	유		108
	일본	9	6.6		무	28	20.6
	중국	17	12.5	시댁가족	유	55	40.4
	캄보디아	12	8.8	동거유무	무	81	59.6
	필리핀	7	5.1	본국가족	유	7	5.1
	기타	5	3.7	동거유무	무	129	94.9
국적 취득유무	유	56	41.2	현재 취업 유무	유	97	71.3
	무	80	58.8		무	39	28.7

## 2) 결혼이주자의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 특성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와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이후 지역사회 적응에 있어서 지역사회 활동 참여가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역사회 활동의 유형과 참여빈도, 정착지원 프로그램 미참여 이유, 참여 만족도, 참여 희망 정착지원 프로그램 등을 설문하였다. 설문 응답자 중 현재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자는 80명(58.8%), 이주 후 한 번도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결혼이주자의 경우 56명(41.2%)으로 나타났다(표 5).

결혼이주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단순생산직 등의 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결혼이주자의 경우에서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비참여형이 더 많이 나타났다.

표 5. 유형 분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형	80	58.8
정착지원 프로그램 비참여형	56	41.2

### (1)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형 결혼이주자의 참여 빈도

정착지원 프로그램 비참여형을 제외한 나머지 58.8%의 참여형 결혼이주자의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빈도를 조사한 결과, 3회 미만 정착지원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 경우가 25명(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회 이상~5회 미만 참여한 경우가 18명(22.5%), 5회 이상~8회 미만이 14명(17.5%), 10회 이상이 16.3%, 8회 이상~10회 미만이 10명(12.5%)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표 6).

표 6.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형의 참여 빈도

구분	빈도(명)	백분율(%)
3회 미만	25	31.3
3회 이상~5회 미만	18	22.5
5회 이상~8회 미만	14	17.5
8회 이상~10회 미만	10	12.5
10회 이상	13	16.3

## (2)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형 결혼이주자의 과거 또는 현재 참여 프로그램

대구광역시 동구와 경상북도 청도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시민단체에서는 유사한 내용의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자 자조모임 및 종교 모임을 포함한 총 14개의 기본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참여형 결혼이주자가 참여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다중 응답으로 설문하였다. 분석 결과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형에 속하는 80명의 결혼이주자가 총 390개에 응답하였으며, 가장 많은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 교육(56명, 14.4%)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다문화 이해 및 인식교육 45명(11.5%), 한국문화 교육(요리교육 포함)이 43명(11.0%), 결혼이주자모임(자조모임)이 42명(10.8%), 원동기, 자동차 시험 교육이 40명(10.3%)으로 각각 1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이처럼 결혼이주자의 대부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시민단체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적인 한국어교육 조차 받지 못한 결혼이주자의 경우 그들이 겪는 언어적 불편은 지역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혼이주자의 언어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센터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방문교육, 지역주민 멘토 등의 보다 다양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7.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형의 과거 또는 현재 참여 프로그램(다중응답분석)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한국어교육	56	14.4
다문화 이해 및 인식교육	45	11.5
가족교육(부부교육 포함)	36	9.2
법률과 인권교육	27	6.9
한국문화 교육(요리교육 포함)	43	11.0
통번역사 및 이중언어 강사교육	15	3.8
취업,창업 교육	15	3.8
원동기, 자동차 시험 교육	40	10.3
자녀 양육지원 서비스	22	5.6
자녀 언어발달 교육	18	4.6
나눔봉사단	16	4.1
결혼이주자모임(자조모임)	42	10.8
종교모임	12	3.1
기타	3	0.8

### (3) 정착지원 프로그램 비참여형 결혼이주자의 비참여 이유

정착지원 프로그램 비참여형에 속하는 결혼이주자 중 프로그램 또는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혹은 참여하지 못한 이유를 설문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56명의 비참여형 결혼이주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이유로, 16명(28.6%)의 결혼이주자는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같이 갈 친구가 없어서 7명(12.5%), 거리가 너무 멀어서(이동수단이 없어서)가 7명(12.5%)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어 교육이나 다른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의향은 있으나 경제활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과 불편한 교통으로 인한 비자발적 비참여 이유가 더 높게 나타났다.

### (4) 참여형과 비참여형 결혼이주자의 미래 참여 희망 정착지원 프로그램

표 9는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형 결혼이주자뿐만 아니라 비참여형 결혼이주자 모두를 대상으로 미래에 참여를 희망하는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다중응답 분석한 결과이다. 이들이 앞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정착지원 프로그램으로

표 8. 정착지원 프로그램 비참여형 중 프로그램 또는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구분	빈도(명)	백분율(%)
사람들과의 만남을 좋아하지 않아서	5	8.9
귀찮고 싫어서	5	8.9
같이 갈 친구가 없어서	7	12.5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6	10.7
가족이 싫어해서	2	3.6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16	28.6
거리가 너무 멀어서(이동수단이 없어서)	7	12.5
지원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5	8.9
기타	3	5.4

표 9. 결혼이주자의 미래 참여 희망 정착지원 프로그램(다중응답분석)

구분	비참여형		참여형		전체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한국어교육	21	16.2	22	6.3	43	9.0
다문화 이해 및 인식교육	10	7.7	20	5.7	30	6.3
가족교육(부부교육 포함)	10	7.7	23	6.6	33	6.9
법률과 인권교육	9	6.9	32	9.2	41	8.6
한국문화 교육(요리교육 포함)	12	9.2	18	5.2	30	6.3
통번역사 및 이중언어 강사교육	6	4.6	35	10.0	41	8.6
취업,창업 교육	9	6.9	41	11.7	50	10.4
원동기, 자동차 시험 교육	12	9.2	18	5.2	30	6.3
자녀 양육지원 서비스	10	7.7	37	10.6	47	9.8
자녀 언어발달 교육	8	6.2	34	9.7	42	8.8
나눔봉사단	7	5.4	27	7.7	34	7.1
결혼이주자모임(자조모임)	10	7.7	18	5.2	28	5.8
종교모임	3	2.3	20	5.7	23	4.8
기타	3	2.3	4	1.1	7	1.5

비참여형에서는 한국어교육이 21명(16.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한국문화 교육(요리교육 포함)이 12명(9.2%), 원동기, 자동차 시험 교육이 12명(9.2%), 자녀 양육지원 서비스 10명(7.7%), 결혼이주자모임(자조모임)이 10명(7.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형이 과

거 또는 현재 참여하거나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순서와 유사하게 나타남을 통해 결혼이주자들이 한국어교육이나 한국문화 교육과 같은 한국에서 적응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기본적인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비참여형의 결과와는 달리 참여형의 경우에는 취업, 창업 교육 41명(11.7%), 자녀 언어발달 교육 37명(10.6%), 통번역사 및 이중언어 강사교육 35명(10.0%), 자녀 언어발달 교육 34명(9.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기본 교육 이외에 자기 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취업을 위한 교육에 더욱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자의 특성 및 거주기간, 참여빈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욕구와 결혼이주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시사해주며, 이에 따른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개선과 지원이 필요함을 상기시킨다.

##### (5) 참여형과 비참여형 결혼이주자의 사회적 지지체계

이형하(2010)는 결혼이주여성이 가족의 지지나 지역사회의 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체계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고,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도와줌으로써 한국생활과 지역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지지자가 되어 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신혜정(2006)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인 변수와 사회적 지지, 학교적응,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설명력을 지닌다고 제시하며, 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정체성이 높게 나타났음을 제시한바와 같이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체계가 이주자의 적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자는 주로 배우자, 시댁식구, 자녀와 같은 가족의 사회적 지지 또는 직장동료, 다른 결혼이주여성, 지역사회 주민, 지역사회 지원단체, 종교단체와 같은 친구 및 지역사회 주민, 국가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 지역사회에 적응에 도움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형과 비참여형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그들에게 심리적·정서적·물리적 지원을 해주는 지지체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비참여형

과 참여형의 사회적 지지체계는 다소 차이를 나타냈으며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형과 비참여형은 각각 30명(37.5%), 21명(37.5%)으로 배우자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비참여형의 경우 자녀(21명, 21.4%)와 시댁식구(5명, 8.9%)와 같은 가족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반면, 다른 결혼이주자(3명, 5.4%)이나 지역사회 주민(7명, 12.5%), 지역사회 지원단체(1명, 1.5%) 등과 같은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는 응답률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비참여형 결혼이주자의 사회적 지지체계와는 달리, 참여형 결혼이주자의 경우에는 가족의 지지뿐만 아니라 다른 결혼이주자(11명, 13.8%), 지역사회 지원단체(9명, 11.3%)와 같은 사회적 지지가 지역사회의 적응에 있어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참여형 결혼이주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참여형 결혼이주자의 경우 비참여형 결혼이주자 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시민단체를 통해 다른 결혼이주자를 만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비참여형의 경우 다른 활동을 통해 가족이외의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참여형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다른 지지체계보다도 가족의 지지체계가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형과 비참여형의 사회적 지지체계 차이

구분	비참여형		참여형		전체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배우자	21	37.5	30	37.5	51	37.5
시댁식구	5	8.9	11	13.8	16	11.8
자녀	12	21.4	13	16.3	25	18.4
직장동료	3	5.4	3	3.8	6	4.4
다른 결혼이주여성	3	5.4	11	13.8	14	10.3
지역사회 주민	7	12.5	3	3.8	10	7.4
지역사회 지원단체	1	1.8	9	11.3	10	7.4
종교단체	4	7.1	0	0.0	4	2.9

최병두 외(2011: 323)의 연구에서 결혼이주자의 지역사회 적응에 있어서 국내의 한국인과 출신국의 친구 수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 바와 같이 결혼이주자에게 지역사회 주민 혹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결혼이주자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 3)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 변화

#### (1)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생활만족도 변화

표 11은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형과 비참여형 결혼이주자의 이주 직후 생활만족도와 현재 생활만족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며, 비참여형과 참여형 모두를 포함한 결혼이주자 136명의 이주 직후 생활만족도와 현재 생활만족도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생활만족도는 개인만족감, 가족만족감, 지역만족감, 국가만족감의 4차원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으며, 전체 만족감은 개인, 가족, 지역, 국가 만족감의 평균으로 분석하였다. 이주 직후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 전의 참

표 11.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생활만족도 변화

구분		N	이주 직후		현재		증가율 (%)	df	t
			M	SD	M	SD			
전체 만족감	비참여형	56	2.94	.526	3.50	.606	19.0	135	-11.218***
	참여형	80	2.79	.582	3.58	.565	28.3		
개인 만족감	비참여형	56	3.07	.544	3.54	.713	15.3	135	-8.835***
	참여형	80	2.91	.590	3.65	.638	25.4		
가족 만족감	비참여형	56	2.99	.567	3.52	.809	17.7	135	-5.826***
	참여형	80	2.99	.747	3.46	.745	15.7		
지역 만족감	비참여형	56	2.82	.685	3.52	.687	24.8	135	-11.743***
	참여형	80	2.63	.691	3.70	.786	40.7		
국가 만족감	비참여형	56	2.90	.732	3.45	.711	19.0	135	-9.066***
	참여형	80	2.62	.750	3.49	.693	33.2		

\*\*\* p < .001

여형과 비참여형 결혼이주자 생활만족도의 평균값을 보면, 개인만족감에서는 비참여자(M=3.07, SD=.544)가 참여자(M=2.91, SD=.590)의 경우보다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1.532, p=.128$ ). 가족만족감의 경우 비참여자와 참여자의 만족도 평균값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지역만족감의 경우에도 개인만족감과 마찬가지로 비참여자가 참여자보다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가족만족감과 지역만족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개인만족감, 가족만족감, 지역만족감과 마찬가지로 국가만족감의 경우도 비참여자가 참여자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국가만족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사 대상자들은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전에는 지역만족감을 제외한 개인만족감, 가족만족감, 지역만족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으며, 참여 후 생활만족도 변화에 있어서 두 집단의 특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였다.

현재의 생활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비참여형의 참여 후 개인만족감(M=3.54, SD=.713)은 참여 전인 이주 직후의 만족감에 비해 15.3%의 생활만족도 증가율을 보인 반면, 참여형의 참여 후인 현재 가족만족감(M=3.65, SD=.638)은 이주 직후에 비해 25.4%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8.835, p=.000$ ). 이러한 비참여형과 참여형의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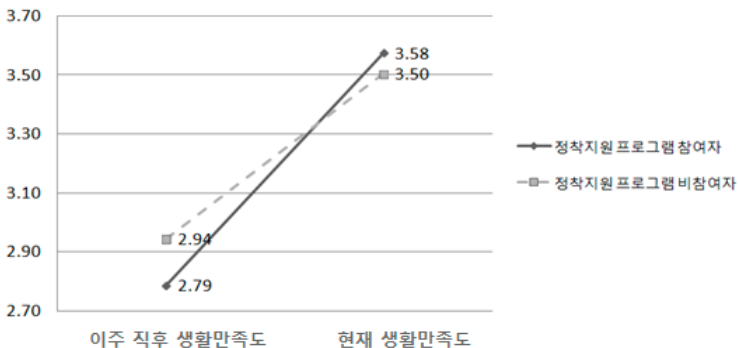


그림 1. 참여형과 비참여형의 이주직후와 현재 생활만족도 변화

주 직후와 현재의 생활만족도 변화는 가족만족감의 증가율(비참여형=17.7%, 참여형=15.7%)을 제외하고는 개인만족감, 지역만족감, 국가만족감 모두 참여형의 증가율이 비참여형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형의 참여 특성에 따른 현재 생활만족도 차이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형 결혼이주자의 참여 빈도에 따른 현재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5회 이상~8회 미만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가 평균 3.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3회 이상~5회 미만 참여자가 평균 3.72로 높은 생활만족도를 나타냈다. 즉,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의 참여 횟수가 언어 효능감 및 사회성 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강현임(2014)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또한 참여 빈도는 참여형 결혼이주자의 현재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그림 2).

반면, 참여형 결혼이주자의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에 따른 결혼이주자의 현재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참여 만족도가 높을수록 현재 생활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따라서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형 결혼이주자의 경우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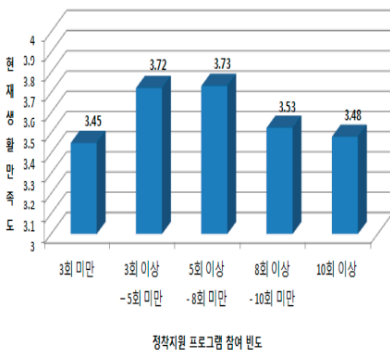


그림 2. 참여형 결혼이주자의 참여빈도에 따른 현재 생활만족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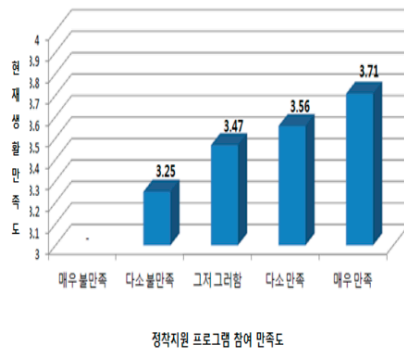


그림 3. 참여형 결혼이주자의 참여만족도에 따른 현재 생활만족도 차이

여 빈도는 생활만족도 변화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참여 만족도의 차이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는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

#### 4)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와 지역사회 적응간의 관계

##### (1) 결혼이주자의 지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상관관계

표 12는 결혼이주자의 지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 적응은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유무( $r=.191, p<.05$ ), 생활만족도( $r=.226, p<.01$ )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만족도는 본국가족 동거유무( $r=.171, p<.05$ )와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유무는 한국국적 취득 유무( $r=.193, p<.05$ )와 한국국적취득 유무는 나이( $r=.288, p<.01$ ), 거주기간( $r=.546, p<.01$ )과 높은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시댁가족 동거유무는 나이( $r=-.211, p<.05$ )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기간 또한 나이( $r=.375, p<.01$ )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결혼이주자의 지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상관관계 (N=136)

구분	나이	거주 기간	시댁가 족동거 유무	본국가 족동거 유무	한국국 적취득 유무	정착지 원프로 그램 참 여유무	생활 만족도	지역 사회 적응
나이								
거주기간	.375**							
시댁가족동거유무	-.211*	-.120						
본국가족동거유무	.094	.117	-.099					
한국국적취득유무	.288**	.546**	.072	-.103				
정착지원프로그램 참여유무	.114	-.154	.038	.099	-.193*			
생활만족도	.133	-.006	-.059	.171*	-.002	.085		
지역사회적응	.070	.070	-.024	-.026	-.088	.191*	.226**	

\*  $p<.05$ , \*\*  $p<.01$

이를 통해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가 지역사회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생활만족도가 높은 결혼이주자가 지역사회 적응도 또한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결혼이주자의 지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적응과 변수들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먼저 결혼이주자의 거주기간,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유무, 생활만족도가 지역사회 적응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자의 지역사회 적응에 영향력에 관한 이 회귀모형은 9.2%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선성의 문제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2,530, p=.018$ ).

결혼이주자의 지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는 거주기간( $\beta = .213, p=.047$ )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유무( $\beta = .179, p=.042$ )와 생활만족도( $\beta=.233, p=.007$ )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나이, 시댁가족 동거유무, 본국가족 동거유무, 한국국적 취득유무는 지역사회

표 13. 결혼이주자의 지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N=136)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D	$\beta$		
(상수)	1.824	.406		4.497	.000
나이	.007	.104	.007	.070	.945
거주기간	.110	.055	.213	2.007	.047
시댁가족동거유무	.015	.119	.011	.127	.899
본국가족동거유무	-.344	.236	-.127	-1.460	.147
한국국적취득유무	-.254	.143	-.185	-1.773	.079
정착지원프로그램 참여유무	.246	.120	.179	2.055	.042
생활만족도	.272	.099	.233	2.742	.007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F	p	Durbin-Watson	
.146	.092	2,530	.018	1.072	

적응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주요 요인 중에서는 생활만족도의 영향력 계수( $\beta=.233$ )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거주기간( $\beta=.213$ ),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 유무( $\beta=.179$ ) 순으로 영향력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다음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 결혼이주자의 지역사회 적응은 생활만족도가 높고, 거주기간이 길며,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적응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부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시민사회 주도 외국인 이주자 지원단체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결혼이주자의 참여 특성을 조사하고,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형과 비참여형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함으로써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참여가 참여자들의 생활만족도 향상 및 지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조사된 연구대상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및 시민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주자와 한 번도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대구광역시 동구 및 경상북도 청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비참여형 결혼이주자였으며, 총 136부의 설문지를 통해 결혼이주자의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 특성과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결혼이주자의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는 개인적 차원, 가족적 차원, 지역적 차원, 국가적 차원 각각의 생활만족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혼이주자의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에서 참여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참여만족도는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이주자의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또한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셋째,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는 지역사회 적응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높은 생활만족도는 지역사회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혼이주자 정착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에 관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2010: 189)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가족생애 주기와 가족 유형에 따라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를 차별화하고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결혼이주자의 참여 빈도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변화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처럼 결혼이주자의 경우 지속적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가 지역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이주자는 입국초기에서부터 완전한 정착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욕구와 문제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착 지원 프로그램은 적합한 상황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그들의 거주기간과 특성에 따른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결혼이주자의 지역사회 부적응은 다문화가정 자녀에게까지 전수·재생산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결혼이주자의 자녀양육 시기에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정책 또한 고려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정착지원 프로그램 비참여형 결혼이주자 중 프로그램 또는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혹은 참여하지 못한 이유를 설문한 결과, 시간 제약과 접근성의 문제가 나타났다. 특히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자의 경우 지원 시설부족의 문제와 더불어 불편한 교통과 원거리 문제 등으로 프로그램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방문 교육의 활성화 및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지원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생활만족도의 향상 및 지역사회 적응은 단순히 한국어 능력의 향상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나 적응 능력의 향상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을 단순히 통합이나 동화만을 위한 정착지원 프로그램 시행의 목적에서 벗어나 그들의 기대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들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애착심을 느끼며,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즉, 한국문화로의 순응과 같은 무조건적인 강요가 아닌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본국문화와 한국문화간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마련이나, 지역 주민과의 상호이해를 전제로 한 다문화 시민교육 등과 같은 교육, 결혼이주자가 지역사회 주민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다른 결혼이주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결혼이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가 어머니 나라의 문화, 즉 모국문화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문화 교육 등이 시행된다면, 그들의 능력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주듯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분명 결혼이주자의 지역사회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다른 문화와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문화적충격을 위해서는 문화 준비나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사회적 기술의 습득이 중요하다(Furnha·Bochner, 1982: 홍장선, 2012에서 재인용). 그러나 단순히 사업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단발적 지원이나 일회성의 이벤트, 결혼이주자의 주류사회로의 편입만을 지나치게 유도하는 동화주의적 정책 지원방안과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착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지원 방향성을 모색하고, 외국인 이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진정한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실질적 지원의 제도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014.4.29 접수, 2014.6.17 수정, 2014.6.29 게재확정

## 참고문헌

- 강현임, 201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참여 수준과 만족도가 참여자의 언어 효능감과 사회성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도 소재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미숙, 2013,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남편과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신문

-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영준, 2008, 노인의 생활체육 참여동기와 라이프스타일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두섭, 2013, 외국인 배우자의 다양성과 국제결혼의 안정성, 집문당.
- 김순양, 2013,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방인: 사회적 배제와 정책적 대응, 집문당.
- 김신영·백혜정, 2008, 한국청소년행복지수 개발연구, 한국청소년개발지, 42(6), 140-173.
- 김오남 외 2명, 2008, 결혼이민자 남편의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1), 69-84.
- 김완기, 2012, 결혼이민자여성의 조기 정착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우찬, 2010,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익준, 2014,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2010, 다문화주의의 이론과 실제, 도서출판 경진.
- 박미향, 2014, 결혼 이주 여성의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진아, 2014,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가 한국정착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의현, 2009, 결혼이민자의 특성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 특성과 사회적응의 관계,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심인선, 2007, 결혼이주여성의 성인교육 경험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0(4), 77-97.
- 오세영, 2010, 다문화가족지원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우지혜, 2014,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부평등, 사회적 지지, 사회참여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순자, 2013,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관계성 연구: 부부의사소통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조절효과 검증, 성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오복,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형하, 2010, 농촌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 이혜린·권유홍, 2014,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여가참여가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26(1), 151-170.
- 장은애·최영, 2010,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정체성 유형과 생활만족도, *사회과학연구*, 26(3),

1-25.

정유리, 2014,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가 정체성의 변화: 대구광역시 동구, 경상북도 청도군을 사례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병두, 2011, 다문화 공생, 푸른길.

최병두 외, 2011, 지구·지방화와 다문화 공간, 푸른길.

최은정, 2008, 국제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정순, 2009,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관한 질적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형임·문영경, 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5, 189-2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개선방안, 경성문화사.

홍장선, 2012, 다문화 구성원의 문화접변에 관한 연구: 미디어 이용과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11690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http://www.kihf.or.kr>.

John W. Berry,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Padilla(Ed.),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some new findings. Boulder: Westview Press, 9-25.

Shin, D. C. & Johnson, D. M., 1978, Avowed happines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 475-492.

Stephen Castles & Mark J. Miller, 2009, The Age of Migration, 이주의 시대, 한국이민학회 옮김, 2013, 일조각.

## **A Study on participation Characteristics of Marriage Migrants Settlement Support Program and Their Community Adaptation**

Yu-Ri Jeong\*

**Abstract** This thesis investigated the participation characteristics of marriage migrants in the settlement support programs offered by government-le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nd the foreign migrant support organizations run by non-governmental entities. In addition, this thesis measured the life satisfaction of participatory and non-participatory marriage migrants in the settlement support programs to determine whether the participation in settlement support programs exerted influence on the improvement of participants' life satisfaction and their adaptation to communities. A total of 136 marriage migrants living in Dong-gu, Daegu and Cheongdo-gun Gyeongsangbuk-do were surveyed via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analysis found that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positively correlated with marriage migrants' participation in settlement support programs and that high life satisfaction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ir adaptation to communities. Specifically, marriage migrants participating in settlement support programs showed higher life satisfaction than non-participatory marriage migrants. Among participatory marriage migrants, the higher the satisfaction with participation in settlement support programs, the higher the satisfaction with present life. Also, high life satisfaction was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adaptation to communit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present study suggested the needs to develop and provide a variety of settlement support programs to improve marriage migrants' life satisfaction and adaptation to communities, and relevant directions for betterment of policy supports.

**Keywords** marriage migrants, settlement support program, community adaptation, life satisfaction, cultural adaptation

---

\* Daegu University Social Education Doctorate course, geography, jeongyuri@daegu.ac.kr